

‘학폭위’ 내년 3월 교육지원청 이관

가해·피해학생 이원화된 재심 절차도 내년부터 일원화

단위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으로 이원화돼 있는 불복 절차도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초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각급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모두 이관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학폭위 업무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폭력 사안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학폭위의 학부도 비중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췄다.

또 이원화 돼 있는 가해·피해 학생의 재심절차도 일원화된다.

지금은 피해학생의 경우 전북도(여성청소년과)가 주관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반면, 가해학생은 전북교육청(민주

시민교육과)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과 분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처에 불복할 경우 전북교육청의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 학생이 동의할 경우 학폭위로 넘기지 않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는 ‘학교 자체해결’ 제도는 이달부터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이 제도는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

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돼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위원회의 전문성은 강화돼 각종 분쟁 및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위 학교의 학폭위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으로써 학교, 담당교원의 업무가 줄어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학교장의 자체 해결제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기능 및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정경.

대학과 지역의 아름다운 상생

전북대, 우수 중소기업에 학생 산업인턴 파견 20명 4개월 간 현장실습 수행 후 취업도 연계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현장형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우수 중소기업에 20명의 학생을 산업인턴으로 파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산업인턴 파견은 전북대 공과대학이 2015년부터 5년째 운영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사업’이 진행해 온 사업으로 중소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포진공원의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

이 사업은 산업인턴으로 선발한 4학년 재학생을 호남권역 내 우수 중소기업에 4개월간 파견해 현장실습을 수행한 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파견 학생들은 지난 여름방학 동안 기업 업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CATIA, EXCEL 고급과정 등의 특화교육을 받았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기업에서 4개월간 산업인턴으로 근무하게 된다.

산업인턴으로 기업에 파견되는 학생들에게는 1인당 4개월간 총 600만원의 교육수당이 지급되고,

최대 18학점(일반선택)까지 현장실습 학점이 인정된다.

특히 4개월간의 인턴 과정을 수료하면 해당기업에 우선적으로 채용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학생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기업 역시 교육수당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R&D 실무역량이 높은 학생을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는 대우전자부품, 데크카본, 동해금속, 바이오리올로지스, 바이오융합기술, 비나텍, 성일하이텍, 세메텍, 아시아, 원진알미늄, 정석케미칼, 지반과 건설, 호룡(가나다 순) 총 13개 도내 우수 중소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해 우수인재 확보 및 기업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정병호 공과대학 학장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지역 우수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앞장

전북도교육청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계획’을 마련, 각급 기관 및 학교에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총 구매액의 3% 이상으로 설정하고, 월별 실적관리와 기관별 구매비율 공지를 통해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했다.

현재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의 의무화한 규정은 없으나 전북교육청은 해마다 3% 이상 구매를 권장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총 212억원, 구매비율 6.59%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 2.29%의 구매실적을 보이면서 권장 목표인 3%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다양한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물품이나 용역 수요

발생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검토 후 구매토록 했다.

주요 구매품목으로는 ▲ 각종 행사용품: 기념품, 인쇄출판, 이벤트 무대설치, 공연 및 디자인 등 ▲ 사무실 소모품: 사무용지, 화장지, 장갑 등 ▲ 시설관리분야: 경미한 공사, 관급자재(배전반·LED 등기구) 등이 있다.

또한 2018년 7월 24일 개정된 지방계약법에 따라 1인 수의계약 범위를 기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기업과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부문 판로

촉진 지원을 위해 전북도청 및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공동으로 공공구매 전시·상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10월 2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도내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 50여개가 참가해 우수제품 전시, 1:1 구매 상담, 기업홍보 등을 진행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통해 관련 기업 육성과 건전한 일자리 창출을 돕고자 한다”면서 “도교육청은 물론 각급 학교와 지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는 권고비율 3%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공립 교사 선정 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최근 2020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를 통해 공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총 모집인원은 유치원 교사 80명, 초등학교 교사 86명,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19명, 특수학교(초등) 교사 36명 등 총 221명이며, 전년도보다 45명이 증가했다. 원서접수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제1차 시험은 11월 9일, 제2차 시험은 2020년 1월 8일~10일까지 실시한다.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12월 11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2020년 1월 3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알림마당-고시/공고)를 통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알림마당(고시/공고)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유치원 명칭 불법사용 학원 집중단속

학원 명칭 누락도 단속 대상

전북도교육청이 유아 대상 학원의 명칭사용 위반사례를 집중 점검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유아(만3~5세)를 대상으로 일일 3시간 이상 외국어, 음악·미술, 놀이 등의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인터넷 포털 키워드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으로 검색 시 학원이 노출되게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실제 00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 등 직접적인 명칭 사용뿐만 아니라 킨더가든(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키즈스쿨(kids school) 등과 같은 유사명칭 사용, 고유명칭 뒤에 ‘학원’을 누락한 경우도 명칭사용 위반사례에 해당한다.

특히 도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시·군에 등록된 유아 영어학원 등이

누리집·블로그·카페·SNS 등을 통해 유치원(학교)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명칭사용 위반 사례가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현장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유아 영어학원이 늘어나면서 유치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로 가장 높은 경쟁률로 접수를 마감했고, 이어서 학생부교과전형(일반학생전형) 물리치료학과가 23.14대 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전주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은 자기소개서 및 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택배를 이용해 11월 18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 도착 확인은 입학홈페이지(iphak.jiac.kr)에서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수시모집 경쟁률 5.23대 1 기록

전주대학교는 2,483명을 모집하는 2020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에 12,988명이 지원해 평균 5.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주대는 2016학년도 수시모집부터 5년간 평균 5.90대 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전형유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특성학교교과열자전형)이 6.44대 1로 가장 높았고,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전형)이 6.30대 1, 실기위주전형에서 6.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과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선발전형)에서 간호학과가 33.00대

전주 에코시티지구 초등생 통학차량 증차

전주 에코시티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증차해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송천동 소재 송북초등학교에 45인승 3대, 신동 초등학교에 45인승 4대를 에코지역 학생의 등하교에 지원하고 있었으나, 유입학생의 증가로 송북초등학교에 45인승 1대를 증차해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통학버스지원은 에코시

티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초등학교 개교(가칭 자연초 2020년 3월 개교예정) 시기가 불일치하면서 개교 전까지 전주송북초등학교 및 전주신동초등학교로 학생을 분산 배치함에 따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는 전주교육지원청과 에코시티공동주택개발시행사가 지난해 10월 4일 에코시티개발지구 입주 초등학생을 위한 통학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